



목포의 5·18민중항쟁

- 1980년 5월 목포의 눈물, 핏물, 그리고 민주의 함성 -

원시림(소설가)



80년 5월의 함성과 눈물, 그리고 외로운 광주를 부둥켜 안은 형제같은 도시 목포는 항구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1980년 5월, 계엄군의 살육에 대항한 광주시민들의 항쟁은 외롭고도 처절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실이란 가리거나 막는다고 해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 물이 차면 넘치듯, 광주에서의 민중항쟁이 주변

지역으로 속속 알려지면서 광주시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시위행렬도 곳곳에서 이어졌다.

대체로 광주민중항쟁이 주변 지역에 알려지게 된 것은 5월 21일 오전. 시위군중이 광주 아세아 자동차공업사와 각종 차고에서 차량을 대거 획득한 것

과 궤를 같이 하는 듯싶다. 기동성을 갖춘 시위대는 그간 광주에서 고립적으로 진행되던 민중항쟁을 전남 도내 각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본래 고속도로를 통해 전주-서울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했으나 광주 외곽을 봉쇄한 계엄군에 막혀 좌절되었고, 그 반대 방향인 전남 전역으로 항쟁의 불꽃이 옮겨 붙은 것이다. 하여 광주 민중항쟁의 들불은 목포, 함평, 무안, 나주, 영산포, 영암, 강진, 장흥, 해남, 화순 등지로 급속하게 번져나갔다. 특히 목포는 전남도청이 계엄군에 의해 무참하게 진압된 이후까지도 조직적으로 항쟁을 지속시켰다.

본지는 지난 해 11월의 광주 민주화유적 답사에 이어, 1980년 당시 목포에서의 항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재의 모습과 더불어 되짚어보고자 한다.

광주에서 온 4대의 시위차량

광주를 빠져나온 몇몇 사람들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소식이 전해지자, 목포시민들은 분노와 울분에 휩싸였다. 그러던 5월 21일 오후 1시경, 광주를 빠져나온 시위대 200여 명이 무장한 채 4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목포에 도착했다. 이들은 광주를 떠나 나주경찰서를 들이쳐 총기를 탈취한 뒤 전남 각 지역으로 광주 소식을 전하기 위해 흩어진 20여 대의 차량에 탑승한 시민군 중 일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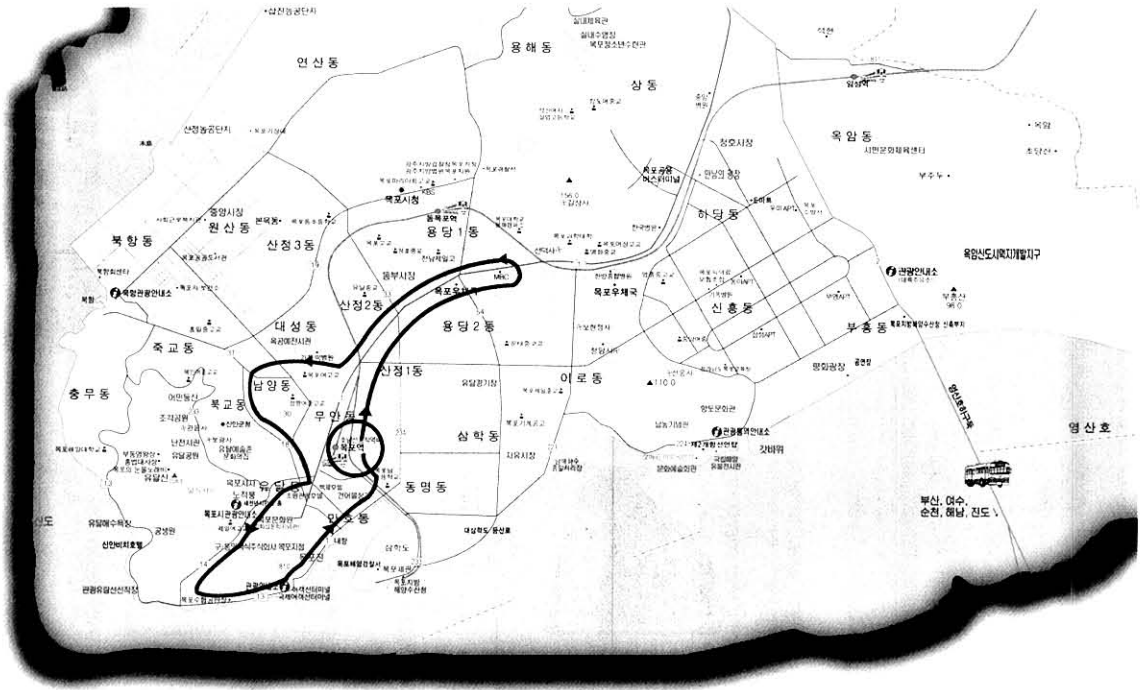


목포 5·18 항쟁의 중심이기도 했고 광주시민 영령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의 현장, 목포역.

“광주민중항쟁의 소식이 전해지자, 목포시민들은 분노와 울분에 휩싸였다”

“이 날 나주를 가니까, 광주에서 오는 차는 있는데 올라가는 차는 없어요, 손을 저으면서 내려가라고만 하고, 그러다 20여 대의 시위차량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과 총기를 탈취하러 나주경찰서로 들어갔는데, 좋은 것들은 다른 곳에 옮겨 놓고 고장난 총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손짓해서 6대의 차량을 목포로 보냈어요, 그 중에서 2대는 아마 다른 곳으로 빠진 모양이고, 4대만 목포에 도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형주(63, 전 목포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씨의 증언이다. 이렇게 들어온 차량들은 각기 목포 시내를 돌며 광주시민의 피해 상황과 계엄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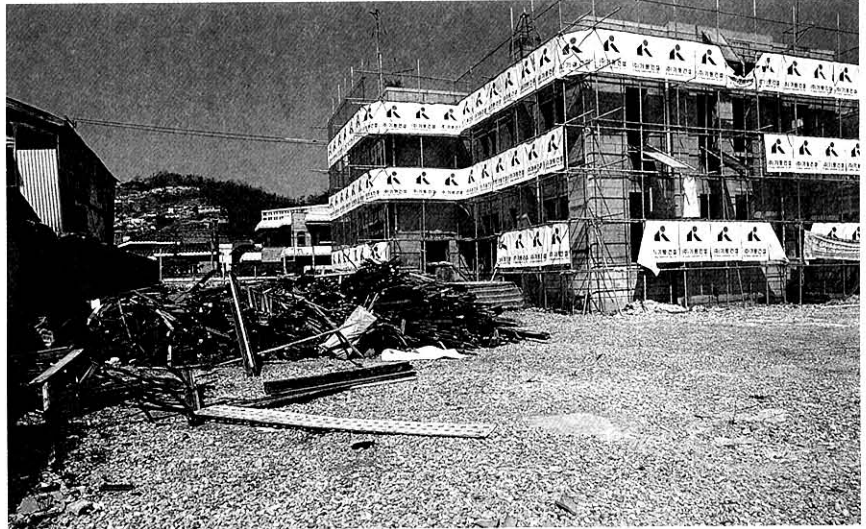
목포시내 햇불행진코스(동그라미가 출발지인 목포역)

만행을 알리면서 목포시민들의 쫓기를 호소했다. 당시 구호는 주로 “비상계엄 해제하라”,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구속 시민·학생을 석방하라” 등이었다고 한다.

버스터미널에서 이들 버스를 맞이한 이성숙(70, 5·18민중항쟁동지회 목포지역 회장)씨에 따르면 삼시간에 시위군중과 100여 대의 차량이 따라붙어 목포 전역을 돌며 시위를 했다고 한다. “당시 목포에는 계엄군이 없었습니다. 광주로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파출소도 비어붙고 치안이 마비된 상황이었지요. 그 후에는 위협을 느꼈던지 경찰들도 모두 도망을 갔지요.” 당시 시위 코스를 살펴보면 시내 중심가에 1대를 비롯하여 법원·교도소·대성동, MBC·웅금동·대만동, 남해개발 부근 등으로 돌며 진행되었고, 이들 4대의 버스 뒤로 군중과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시위대가 텅빈 경찰서나 관제언론에 들어가 유리와 집기를 부수고, 경찰차에 불을 지른 것은 광주에서의 시위양상과 비슷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중앙정보부 목포 분실과 파출소에 방화를 하고, 무기고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을 하였다. 이렇게 운집된 시위대는 주로 목포역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22일에는 ‘시민 민주투쟁위원회(위원장 안철, 당시 34세)’를 꾸리고, 27일까지 5차에 걸친 ‘민주헌정 수립을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또한 22일 밤 20여만의 군중이 목포시 전역을 횡불로 채우며 시위를 했는데, 이 역시 27일 밤까지 지속되었다 한다. 당시 햇불행진코스를 살펴보면 ‘목포역→목양→목포여고→시민극장→중앙극장→중앙시장→목포극장→중소기업은행→구경찰서→항만터미널→선창(어판장)→대한통운→역광장’의 궤적을 그린다(지도 참조).

이때 항쟁의 지도부에서는 총기로 무장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달랐던 듯하다. 이성숙씨는 “불법무기는 위험하니 반납하자”는 입장이었고, 최형주씨는 “당시 목포는 절도사건 하나 없을 만큼 민주적이었고, 어차피 총기는 고장난 것 투성이었다. 총기를 회수한 이후에 기세만 꺾였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아무튼 1차 시민권 기대회를 통해 안철 위원장은 “광주시민 학살은 자유시민을 억압하던 유신독재 잔당들과 군인들의 정권욕이 결합하여 빚어낸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역사적·반민족적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한 뒤, 무기를 반납하고 평화적으로 싸움을 이끌어 가자고 주장하였다.



80년 당시의 헌병대 영창은 당시 모습이 거의 그대로인데, 일제 시대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었다.



목포역, 보안대, 헌병대 영창

당시의 시위군중은 인근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개항 이래 최대 인파였을 것이라 한다. 아무려나 시민들은 ‘김대중 석방하라’는 혈서를 썼고, 상공에서는 군 헬기가 ‘폭도들은 자중하고 시민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전단을 뿌리며 연일 선전방송을 했다. 그리고 목포역 대합실에는 광주 시민 영령들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애도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그 역사의 현장인 목포역 주변은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 필

자가 목포역을 찾았을 때는 대합실 외벽을 통유리로 바꾸는 보수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광장을 지나 버스정류장 앞까지 걸어가자 그 앞에 ‘목포시민운동협의회’에서 1997년 5월에 세웠다는 표지석을 볼 수 있었다.

“(…) 5월 21일 목포에 도착한 광주 시민군과 함께 대규모 항쟁의 신호탄이 올랐던 이곳은 5월 28



목포 5·18 항쟁을
역사의 유물로 화석화하지 않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된 목포 5·18 민중항쟁의 중심지였다. (...) 특히 이곳은 5·18민중항쟁 당시 항쟁지도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목포지역의 대규모 모적이고 조직적인 항쟁을 준비하고 펼쳐낸 근거지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각종 행사는 물론 목포 시민들의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열망하는 의지를 모아내는 상징적 공간이 되고 있다.”

이성숙씨는 역사(驛舍) 입구 쪽 바로 앞에 당시 연단이 있던 장소라고 설명하고 난 뒤, 당시 '유달다방'이 있었다는 맞은편 쪽의 빌딩을 가리킨다. 목포지역에서는 5·18민중항쟁을 통해 모두 70여 명이 투옥되었는데, 그때 보안대에서 사진촬영을 하며 주동자를 가려냈던 곳이 그 건물 옥상이었다고 한다.

표지석을 세운 날짜와 주최 측을 빠뜨린 실수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목포는 유적지를 알리고 기념하는데 충실하려 했다는 인상이다. 지금은 호텔이 들어서 있는 옛 목포경찰서 자리에도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시위대가 무안을 왕복하며 격렬하게 차량시위를 전개했던 지산군부대 입구 길의 건너편에도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만큼 겉모습이 달라진 유적도 많다. 당시 '광주 505보안대 목포분실'로 사용되었다는 건물은 민간인에게 넘어간 상태로 비어 있다. 간신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성숙씨는 당시 보안대 본관 건물 오른쪽에 단층 슬레이트 건물로 지어진 고문실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곳에서 곤봉에 맞는 바람에 아래 잇니가 모두 부러졌다며 틀니를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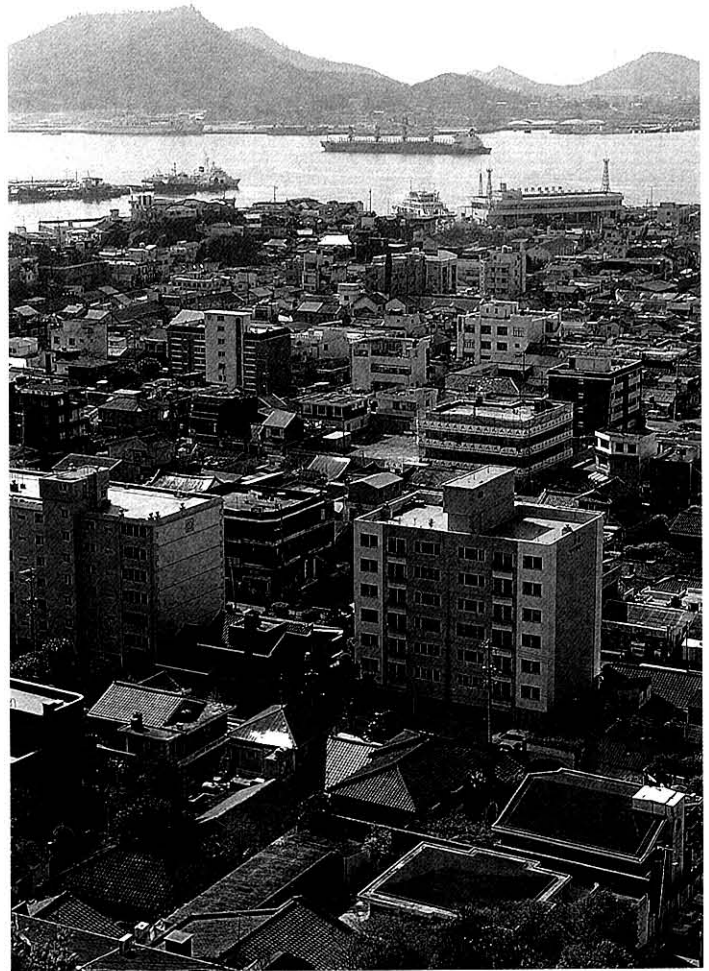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현병대 영창 자리가 아주 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제시대 때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지어졌다는 이 건물은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물인데, 해방 뒤에는 해군경비부 목포사령부로 사용되다가 이후 1980년 당시에는 해군 현병대로 사용된 곳이다. 역사적인 변천이나 건축양식도 그렇지만, 비교적 당시 영창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광주의 '상무대'가 '5·18 자유공원'에 복원된 것처럼 교육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도 있을 듯했다. 하지만 필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해체를 위해 건물 외벽을 따라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5·18민중항쟁은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가 성취한 것

최형주씨에 따르면 목포시민운동협의회가 주관해 펼치는 정신계승사업이 매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데, 이 기간이면 국립5·18묘지를 참배하고 5월항쟁을 재현하며, 당시 햇불시위를 벌였던 코스를 따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단다. 5·18민중항쟁을 역사의 유물로 화석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뛰어 가는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이었다.

아무려나 광주민중항쟁이 광주 시민만의 것이 아니라, 전남지역 주민 모두가 성취한 민주화의 대역사라는 점을 새로이 조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5월 28일까지 진행된 목포에서의 항쟁이 없었더라면 광주의 민중항쟁 역시 그만한 힘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목포의 5·18항쟁은 계엄군을 피해 산으로 걸어다니며 광주와 전남 각 지역의 소식을 발로써 전한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도 값하는 것이다.



80년 5월,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은 또 하나의 '항쟁의 역사'로 남아 있다.

원시림

소설가. 1972년 충북 제천 출생. 19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와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발표작으로 「기동」, 「용꿈」, 「익스언매치」, 「스멸의 흔적」 등이 있음. wonsilim@korea.com